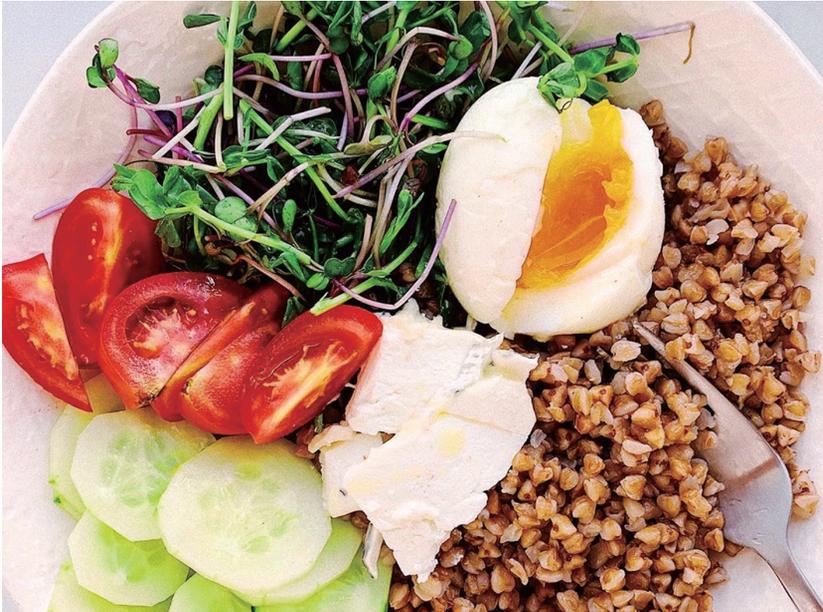


과일, 채소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신선농산물 시장 분석

[현재 러시아인들이 주로 섭취하는 건강 식단]



▲ 메밀밥, 토마토/오이 샐러드, 반숙 달걀

출처 : www.instagram.com/salatshop/

변화하는 소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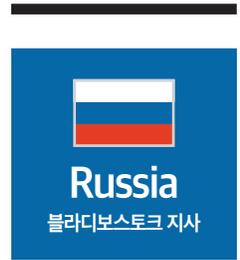
러시아인들은 지리적 특성상 채소나 과일 작물 재배가 어려워 비교적 재배가 쉬운 곡물류를 주식으로 섭취를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주식으로 먹는 식품들은 빵과 같이 대부분 곡물로 만들어진 제품 위주다. 때문에 곡물 위주의 식사와 함께 과일과 채소는 영양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보완제품으로 여겨졌다. 보통 채소는 애피타이저로 식사 전 샐러드로, 과일은 식사를 끝마치고 디저트로 섭취를 하였다.

과거 소비 패턴은 빵류(35%), 육류 및 가공품(18.6%), 우유 및 유제품(13.9%), 설탕 및 제과(10.6%) 등을 주로 소비해 식생활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과일과 채소의 소비 비중은 약 9%에 불과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인들의 식탁에 변화가 생겼다. 건강한 식단이 이슈화 되기 시작하면서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차츰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소로 만든 요리는 식탁의 메인 자리를 차지하였고 과일일은 건강 간식으로 섭취하거나 샐러드에 첨가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일과 채소류의 주요 소비자층을 조사해본 결과 1인 가구, 부부 및 3인 가정이었다. 러시아인들의 과일 소비 패턴은 인구의 57%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 구매, 23.2%는 주 1회, 19.8%는 2주에 한 번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8년 1인 평균 과일류 소비는 61kg이었으며 2019년에는 1인 평균 약 63kg의 과일류를 소비하였다.

2019년 채소류 소비는 전년 107kg 보다 증가하여 1인당 연평균 110kg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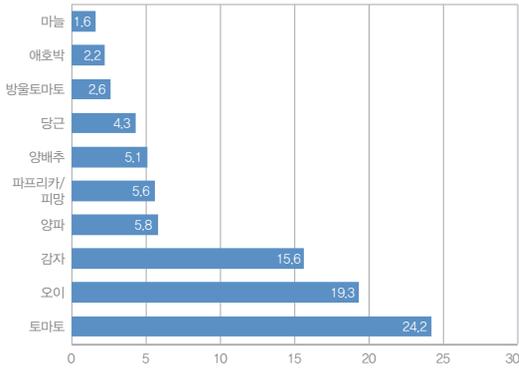


러시아인들의 채소 소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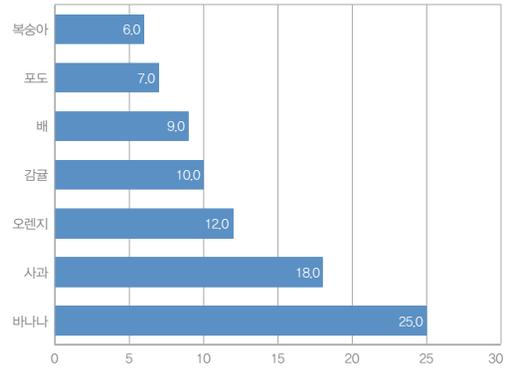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채소류에 대한 소비는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채소류 소비량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4.8%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 채소 소비율(%)]



[2019년 과일 소비율(%)]



2019년 채소류 최고 소비 지역		2019년 채소류 최저 소비 지역	
1	다게스탄 - 247kg/1인	1	추코트카자치구 - 34kg/1인
2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 181kg/1인	2	투바 자치 공화국 - 41kg/1인
3	볼고그라드주 - 181kg/1인	3	부랴트 공화국 - 62kg/1인
4	아스트라한주 - 172kg/1인	4	아쿠티아 공화국 - 70kg/1인
5	오렌부르크주 - 159kg/1인	5	이르쿠츠크주 - 70kg/1인

2019년 과일류 최고 소비 지역		2019년 과일류 최저 소비 지역	
1	카바르디노발카르 공화국 - 117kg/1인	1	추코트카자치구 - 12kg/1인
2	크라스노다르 지방 - 94kg/1인	2	투바 자치 공화국 - 21kg/1인
3	아디게야 공화국 - 88kg/1인	3	칼미크 공화국 - 31kg/1인
4	보로네시 주 - 77kg/1인	4	마리엘 공화국 - 33kg/1인
5	연해주 - 77kg/1인	5	이르쿠츠크주 - 34kg/1인

[채소류 감소 비율]

품목	수익률(%)	판매율(%)
토마토	-3.1	-2.7
오이	-1.4	-0.1
감자	-5.8	-4.2
양파	-3.2	-1.8
파프리카/피망	-6.9	-3.5
양배추	-12.3	-8.1

채소 및 과일 생산

과거 생산 능력이 없었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하여 러시아 정부는 2013~2018년 온실 채소 생산에 국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국가 지원이 20%에서 10%로 줄어들어 생산량 또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온실 채소 생산으로 인하여 자국 내 채소 생산 및 공급량이 급증하였으나

토마토 수요의 감소는 일반 토마토 판매에만 영향을 주었고, 방울토마토 부분은 지속해서 성장하였다. 최근 2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위의 채소 판매율은 5.7%로 증가했고 수익률도 8.2%로 증가하였다.

러시아인들의 과일 소비율

러시아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일류에 대한 수요는 다음과 같다.

기타로 파인애플, 무화과, 대추, 망고, 레몬, 수박 등 다른 과일과 열매가 시장의 13% 점유율을 차지했다.

통계를 보았을 때 과일과 채소의 소비량은 농업이 지역의 주력 산업이거나 국경과 접경지일 경우, 과일과 채소의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소비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 국민들의 자국 생산 채소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여전히 낮은 소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수년 동안 주로 생산되는 과일은 사과이다. 주요 사과 생산지역은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크라스노다르(Krasnodar/краснодар)’로 이 지역은 러시아 농업 생산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베리(berry, ягода)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알타이, 모스크바 지역이 각각 1, 2위 생산 지역이다.

신선식품 수입 현황

러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전체 소비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 가능한 채소는 오이, 감자, 양파, 당근으로 신선 시장에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피망/파프리카, 가지 등과 같은 다른 채소들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들은 대부분 오이, 감자, 양파, 당근으로 겨울철 채소류의 수입 비중은 지역에 따라 90~100%에 이른다.

이 외에도 토마토(58%), 피망(16%), 상추, 배추 등(12%)이 매년 꾸준히 수입되고 있다. 러시아도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으나 매우 작은 규모로 매년 아제르바이잔, 중국, 모로코, 벨라루스에서 수입하고 있다. 오이는 생산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많아 성수기에도 꾸준히 아제르바이잔, 중국, 벨라루스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수입 과일의 비중은 약 85%로 최근 2년간 수입 과일의 비중은 89%에 달하였으며 러시아 통계청(Rosstat)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러시아 과일 소비량은 1인당 48kg, 715만 톤이라고 보고되었다.

2019년 딸기 수입량은 4만3천 톤에 달하였고 2018년 대비 6천 톤으로 수입량이 하락하였다. 산딸기, 블루베리, 블랙베리, 크랜베리, 구스베리 등이 수입되고 있으며, 그중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의 수입량은 최근 1년간 2배가량 증가하였다.

Key Point

러시아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과일과 채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체 생산을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기후 등의 문제로 인해 러시아 남부지방으로 생산 가능지가 제한적이어서 수입산 과일 및 채소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선식품의 운송에는 물류여건도 중요하므로 한국과 인접한 극동 러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우리 신선과일 및 채소의 우수성을 알려 나간다면 새로운 수출 유망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❶ <http://www.visit-russia.ru/news/nakanune-turpauzy-v-2019-god-organizovanny-turizm-iz-kitaya-vyros-na-12> ❷ <https://www.rbc.ru/rbcfreenews/5e1d58e29a794723545c4d34> ❸ <https://iz.ru/977226/2020-02-17/v-fas-nazvalli-koronavirus-prichinnoi-podorozhniia-ovoshchei-na-dalнем-vostoke> ❹ <https://www.news1.ru/vlad/2020/02/04/187501/> ❺ <https://www.news1.ru/vlad/2020/02/23/187995/>